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5)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8-11)

꽃 한 송이

민들레꽃 한 송이를 / 민들레가 피었다면
하늘은 뭐가 되고 / 땅은 또 뭐가 되나
하늘이 피었다 하면 / 민들레는 뭐 되나

민들레가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는지를 흥미롭게 제시한다. 먼저는 하늘과 땅의 도움으로 가능케 되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들레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민들레 피어나는 이야기에 하늘과 땅의 기여와 민들레의 수

고를 함께 바라보게 한다. 성경 해석도 이와 같아야 한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도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모두 존중해야만 제대로 의미가 드러난다.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게 된다면 반쪽짜리 성경 읽기와 해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 통합과 상생의 해석학을 위한 신학적 근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성육신은 참 하나님(신적 측면)께서 참 인간(인간적 측면)이 되신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요소 없이 인간이 되는 것으로도, 인간의 요소 없이 하나님으로 계신 이야기



도 아니다. 두 요소의 온전한 통합이 성육신의 역사를 가능케 한다. 우리들의 성경 해석도 성육신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역동성을 상실한 기계적인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와 해석도 문제가 되고, 그저 영웅전식으로 성경을 읽은 도덕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성경 읽기와 해석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다. 전자는 인간적인 측면의 부재로 청중의 현실과 실존 그리고 삶을 향한 적용을 상실한 무미건조한 논의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이에 반해서 후자는 성경이 일관되게 담아내고 있는 신 중심적 관점을 간과하는 치명적인 함

정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두 관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자 입장과 견해로 성경을 한 방향으로만 읽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신 중심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성경 읽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다.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를 두 측면을 하나씩 고려해 보는 자세로 논의해 보고 이를 통하여 성육신적인 읽기와 해석의 한 실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늘(하나님)의 도움 없이 민들레 꽃 한 송이가 스스로 피어났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민들레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은 민들레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신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이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린 교회라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칫 서머나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상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본다.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서머나 교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그것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 스스로 피어오른 것이라고 하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뭐가 되는 것인가! 하늘과 땅의 은총이 없었다면 민들레가 꽃 한 송이를 피어나게 할 수 없었듯이, 서머나 교회의 위대함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결과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머나 교회가 본래 탁월한 자질이 있어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이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이다. 칭찬만 들은 두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변방으로 밀려난 교회들이다.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이다. 연약하기에 더욱 더 짠 마음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다. 서머나 교회의 위대함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서머나 교회 스스로의 위대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

시는 주님의 시선 때문이다. 무결점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만 받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인간적인 유능함이나 자질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난과 궁핍의 자리에 있는 신자도, 교회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분투(참음)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음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이제 두 번째 측면을 적용해서 교훈을 찾아보자. 하늘(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이 민들레 한 송이가 비바람을 견디는 인고의 과정 없이 피어올랐음을 뜻하지 않는다.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도권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야지,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 되서는 안 된다. “은혜”와 “주권”의 반대말이 “분투” “참음”이 아니다.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서머나 교회의 신앙적 분투가 함께 역설적 긴장 속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을 듣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김’이라기보다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김’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때문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 표현은 어두운 환경을 신자들을 기르시는 최적의 양육의 장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분투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절묘하게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인생 편에

서 그 분께 드러야 할 올바른 반응과 책임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하기에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이긴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환난과 궁핍 ‘때문에’ 이긴 교회라는 표현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로 다니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다. 조국을 잃고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다니엘의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는다. 성경은 솔직한 책이다. 결코 인간을 영웅화 하거나 미화하는 책이 아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칭찬 일색이다. 다니엘서에서 그의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은 개인이고 서머나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남다른 신앙으로 포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신앙인의 표본으로 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상술한 것처럼, 다니엘도 역시 포로의 환경 ‘때문에’ 승리한 신자의 본보기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천적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다니엘의 신앙적인 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을 위한 적용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삶이 버겁다는 것이다. 한 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었다. 그만큼 아픈 청춘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춘만 아픈가? 그렇지 않다. 이 땅에 모든 인생은 아프다. 그러니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그저 우리들의 강인한 믿음으로만 극복해야 한다면 그것은 큰 절망일 것이다.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당위의 명령이 되고 만다. 우리는 그 당위의 명령으로만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당위의 명령을 알지 못해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권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저 당위의 명령으로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이다. 우리의 문제를 더 노력하고 더 분투해야 할 영역의 부족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계시록 12장 6절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가 용의 공격으로 광야로 도망을 한다. 그러니까 광야는 도주한 교회가 머무는 비상 대피소이다. 비상 대피소의 현실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곳이 비상 대피소이다. 성경은 지금 그 광야 같은 현실을 마땅히 견디어 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마침내 그 자리로 가야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상기 시킨다. 그 광야, 비상 대피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양육처’임을 알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비하신 양육처라고 말씀 하신다. 결코 광야가 손해되지 않게 역사 하실 것을 천명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환경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 어두운 환경 때문에 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이김을 목도케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직면해야 할 ‘암담한 현실’이 내 스스로 싸워내야 할 현실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어내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양육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임을 알기에 어둠 속에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두운 환경을 이길 힘은 없지만,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줄기를 역행하지 않고 내 몸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너무도 무기력해서 장애물을 뚫고 헤엄쳐 나갈 수는 없지만, 어두운 환경, 혹은 천적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실 그분의 계획 속에, 그 위대한 물줄기 속에 나를 맡

기며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역주행 하지 않고 그렇게 그 분이 인도하시는 물결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반전의 드라마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때이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니엘처럼 어두운 환경의 자리에 놓이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어두운 환경 ‘때문에’ 신자는 이기게 될 것이다. 